



海外業界動向

워크스테이션 세계시장 40% 成長

美 Dataquest Inc.은 1989年의 세계의 워크스테이션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 정리했다. 그것에 의하면 워크스테이션 시장은 1988年부터 1989년에 걸쳐서 40.2%의 성장을 거두어年間賣上高가 60億 5,100萬弗에 달했다.

1988년에 27.0%의 시장을 자랑했던 美 Sun Microsystems, Inc. 이 더욱 점유율을 확대하여 선두의 자리를 견지했다. 同社의 매상고는 前年對比 48.9%增인 17億 3,500萬弗에 달했다. 한편 1988년에 점유율 3위를 차지했던 美 Hewlett-Packard Co. (1988年の 점유율 15.5%)가 同年에 4위를 차지했던 Apollo Computer Inc. (同 13.7%)을 매수함으로써 Sun社의 점유율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 결과적으로 Sun社의 신장이 HP社와 Apollo社를 합산한 신장(성장률 27.0%)을 크게 상회했다.

그 이유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un 社가 1989年 봄에 발매한 SPARC 아키텍처의 RISC 機「SPARC-station 1」가 우수한 가격대 성능비 때문에 시장에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또 하나는 HP社의 워크스테이션과 아폴로社의 워크스테이션이 금후 어떻게 통합되어 갈 것인가라는 장래계획이 1989年末까지 미발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안하게 느낀 유저가 敬遠했던 것이다. HP社의 HP-UX系 워크스테이션과 舊아

폴로社의 DOMAIN系 워크스테이션을 어떻게 一本化하는지가 HP社의 반격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0年の 인기상품의 하나는 美IBM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워크스테이션 시장으로의 再參加로 어디까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製造業 國際競爭力 回復, 日本을 모델로

美議會技術評價局(OTA)은 최근 「제조업에서의 경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美國의 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새로운 협력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표명하고 정부내부에 「民間技術局」을 설치해 日本을 모방하여 필요한 산업정책을 표방하도록 제언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美國의 제조업은 현재 日本을 비롯한 諸外國으로 부터의 도전을 받아 일찍이 없었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위기 원인의 대부분은各업계 내부에서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부시 정권內에 강력한 産業政策否定論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국제경쟁력 회복의 모델로 日本을

강력하게 의식해서 금후 美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으로서 관민합동의 연구, 개발체제의 육성 및 산업계에 저코스트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정책, 또한 정부의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新技術의 民間에의 보급촉진 등을 표방했다.

또한 보고서는 日本에서의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美 IBM, 中國 天津에 퍼스컴 공장 설립

美 IBM Corp.이 中國의 天津市에 대규모의 퍼스컴 공장을 설립한다고 新華社通信이 天津市의 張昭若 副市長의 談話로서 보도되었다. 同통신은 투자금액과 제품 등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990年 中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中國의 퍼스컴 시장은 대부분이 IBM機와 그 호환기이다. IBM은 中國정부와 민간에게 多數의 납입실적을 갖고 있다.

美國, 비디오 一體型 TV 販促에 노력

풀 사이즈 및 포터블 비디오 一體型TV는 현재까지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메이커는 이 신홍소비자 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유례없던 판촉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비디오 一體型TV 제품은 퍼스널 시스템의 개발에 의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퍼스널 시스템의 판매에서는 현재 몇몇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Sony가 音聲專用 워크맨의 AV版이라고 선전하면서 업계를 리드하고 있다.

가격 인하 경쟁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두개의 제품을 하나로 하여 판매한다고 하는 가격에 대한 영향이다. 현재 一體型 제품은 가격이 저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종에서 TV와 VTR을 따로 따로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가격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금년은 新規메이커가 시장으로의 참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가격이 더욱 인하되어, 따로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쌀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今年에 몇가지 기종은 벌써 평균가격이 그 지표에 접근하고 있다. 13인치형은 599弗 이하까지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一體型 제품의 '89년의 매상대수는 25萬臺에서 30萬臺로 추정되었는데, '90년에는 45萬臺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松下도 일찍부터 비디오 一體型 TV 분야에 참가했는데今年에 접어들어 제품라인을 확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松下 산하의 Panasonic社와 Quasar社는 최대 27인치형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전의 冬季 CES에설 Panasonic은 20인치 TV에 NTSC, SECAM 및 PAL의 TV方式에 의하여 녹화된 VHS 테이프에서도 재생할 수 있는 범용 VTR을 一體化한 제품을 발표했다.

Zenith, HDTV 研究員 增額

美國의 家電메이커인 Zenith Electronics 社의 회장은 최근 本社가 있는 일리노이주 그렌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今年은 고품위 TV(HDTV)에 관한 연구비를 작년보다 800萬弗 늘려서 1,000萬弗로 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표명했다.

同社는 美國電話電信會社(ATT)와 편성하여 HDTV의 通信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연구비는 同시스템과 수상기의 개발에 사용된다고 한다.

일본, 超高温材料研究센터 설립

通産省이 新에너지 總合開發機構의 연구기반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서 第3 섹터 方式에 의해 준비를 추진해 온 「超高温材料研究센터」의 창립총회가 최근 개최되어 발족되었다. 同센터는

2,000°C의 超高温極限 환경하에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견딜 수 있는 超高温材料의 개발을 목표로 거기에 필요한 최첨단시설을 정비했다. 자본금은 9億 5,000萬円(授權資本金 22億 5,000萬円)이다. 出資者는 新에너지·産業技術總合開發機構(NEDO), 自治단체 4개, 民間企業 45개사의 총 50개 단체이다. 초기투자액은 45億円, 供用開始 시기는 1992年으로 예정하고 있다.

또한 産學官의 연구기관으로 부터의 의뢰에 의한 평가시험·분석을 실시하는 소프트法人이라고 할 수 있는 超高温材料研究所도 동시에 설립되었다.

연구소장에 의하면 超高温材料研究센터는 日本에서 超高温材料研究·開發의 유일한 기구라고 한다. 지구환경, 자원문제에 관계되는 금후 에너지의 고효율 이용의 인류활동권의 확대에 이바지하는 우주공간 이용을 도모하는 등 21世紀를 여는 중요과제에 대응할 超高温材料의 創成研究 및 이들 재료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材料特性評價를 시행할 예정이다.

美, HDD의 공산권 수출 자유화 제안

美商務省은 4月 2日, 퍼스널 컴퓨터 주요 부품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驅動裝置)의 對公産권 수출을 자유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對共産圈輸出調整委員會(COCOM)에 대해 禁輸리스트에서의 제외를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商務省에 의하면 COCOM 14개국 이외의 생산량이 증가해 거기에서 입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禁輸의 의미가 희박해져 今後 미국으로부터의 輸出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달리 최대 45M Byte 용량의 하드 디스크(記憶媒體)의 西方諸國 수출면허제도 철폐되었다.

東獨 로보트론社 대만과 합작으로

東獨의 국영기업인 로보트론과 대만의 퍼스컴 메이커 Aquarius Systems은 동독에서 퍼스컴을 공동생산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로보트론은 當面 Aquarius에서 부품을 수입, 同社의 조메루다 공장에서 조립할 계획인데 순차적으로 동독제의 모니터와 프린터를 조립할 계획이다.

다음 단계로서 兩社는 東獨에 합 9 퍼스컴 생산회사를 설립, 東獨에서 완전 생산할 뿐만 아니라 Aquarius의 퍼스컴 생산 Know-how를 로보트론에 이관할 계획이다. 東獨에서 생산된 퍼스컴은 국내에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기타 東歐諸國에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보트론은 작년(1989年)에 퍼스컴 6F 2千臺, 프린터 15萬臺, 타이프 라이터 5萬臺를 생산하여 주로 소련에 수출했다. 同社는 종업원 6萬 5,000名, 국내에 15공장을 갖는 동독 최대의 전기메이커이다.

일본 소니, 유럽에 半導體 전문판매회사 設立

소니는 반도체 전문판매회사를 유럽에 설립할 계획이다.

英國에서의 立地가 유력한데 年內에 발족시켜 유럽 전역에서 반도체 판매를 담당한다. 同社는 1992年末의 歐洲共同體(EC)의 시장통합을 겨냥하고 반도체의 현지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기초작업으로서 自社製品の 시장확대를 겨냥하고 있다.

현재까지 「Sony Deutsch Land」에서 歐洲市場에서의 반도체 판매를 해왔다. 그러나 영업체제가 약해 매출은 年間 50億円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Sony가 유럽에 반도체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EC 시장통합을 앞두고 自社의 반도체 시장을 확대해 현지생산을 착수하는 기초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日本の 반도체업계는 영국에 공장을 건립한

日本電氣에 이어, 富士通, 三陵電機, 日日製作所 등이 유럽 현지생산을 속속 결정하고 있다.

일본의 카메라 一體型 VTR 동향 —

일본에서는 카메라 一體型 VTR을 중심으로 비디오의 小型輕量化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据置型 VTR이 20%의 보급률을 넘어서고今年 들어서도 국내(日本) 출하가 前年을 크게 밀도는 심각한 상황하에서 各社 모두 今年의 비디오戰略으로서 小型輕量化 경쟁이 VHS, 8mm 양진영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에 카메라 일체형 VTR의 국내 출하는年初 예상을 약간 하회했지만 약 160萬臺로 前年對比 24%이상의 신장을 보여 AV機器中에서는 拔群의 신장을 보였다. 今年의 총수요는 200萬臺 전후로 더욱 수요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라 일체형 VTR 시장은 보급률은 작년에 13%臺에 달해 보급률 20~30%를 향해 순조롭게 수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종전의 자녀 성장기록을 주제로 한 수요에서, 여행, 스포츠, 취미세계로의 용도확대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6월에 Sony가 세계 최소 최경량 패스포트사이즈로서 발매한 8mm 비디오가 국내의에서 空前의 히트가 되어, 그 후 松下電氣가 금년 1월부터 발매한 1kg의 S-VHS와, 스테레오 하이파이 「NV-MVI」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日立에서는 2月 중순부터 업계에서 최초로 Twist grip을 채용, VHS 무비에서는 최경량(970g의 69mm)의 超薄型의 「VM-C1」의 발매를 단행했다. 月産 臺數도 2萬臺로 증산시키고 있다.

三洋電機에서는 업계 최경량의, 電子 스틸 카메라와 동일한 업계최초의 橫型 스타일의 8mm 비디오 무비 “지마” 「VM-ES88」을 4月 21일부터 발매를 단행한다. 했 했

또한 日本 Victor에서는 S-VHS 비디오 데

크를 핵으로 CCD 비디오 카메라, 液晶 모니터, TV 튜너 등의 유니트로 구성되는 세계 최소 최경량의 시스템 「GETS」를 5月 16일부터 발매할 예정이다.

일본의 1988년도 외국기술도입 현황

일본의 과학기술청 산하의 과학기술 정책연구소는 최근 1988년의 외국 기술도입의 건수를 발표했다. 1988년의 新規 기술도입 계약건수는 2,834件으로 前年度에 비교하여 125件, 4.6%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 중 商標만의 계약을 제외한 기술적 계약건수는 2,519件으로 前年度에 비교하여 14件이 감소, 또한 指定技術은 1,440件(그 중 대가가 1억円 이상의 것은 676件)으로 前년에 비교하여 200건, 16.1%의 증가를 보였다.

新技術 도입건수는 1955년부터 증가기조로 추이해 온 도입건수도 1973년의 2,450件을 정점으로 격감되었으나, 1975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1987년, 1988년에는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다.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電氣가 1,341件, 전체의 47.3%로 가장 많고, 기타 671件, 同 23.7%, 機械 439件, 同 15.5%, 화학 313件, 同 11%, 금속 70件, 同 2.5% 순을 나타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789件으로 전체의 98.4%로 압도적으로 많고, 기타 산업 19件, 건설업 18件, 농림수산업 7件, 광업 1件을 나타냈다.

제조업의 내역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電氣 機械器具가 1,341件으로 이것은 제조업의 48.1%에 해당한다. 이어서 一般機械器具 370件, 이하 의복·섬유제품 252件, 화학제품 236件, 기타 제품 145件의 순이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電子應用裝置의 1천 81件이 가장 많고, 이하 의류 183件, 통신기계 120件, 수송기계 100件이다.

기술분야별 도입비율은 電氣의 비율은 漸增

경향, 기계화학, 금속은 漸減 경향이다. 이 중 첨단기술분야는 전자계산기 및 同 관련서비스가 매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1988년에는 1,067件, 同年度 新規 全體數의 37.6%를 나타냈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985件, 同 92.3%를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관련은 매년 현저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1988년에는 241件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기타 항공·우주개발관련, 원자력 등은 증가하고 있다.

대만의 情報機器 수출 동향

대만의 정보기기 산업은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1989年の 수출은 매우 저조하게 끝났다. 퍼스컴의 수출대수는 124萬 4,000臺였다. 1988년에 비교하여 약 7.8%增을 보였으나 신장률은 과거 최저였다. 금액은 19億 8,300萬 US 弗로 1988년에 비교하여 약 0.2%減인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美國 퍼스컴의 저조한 상태를 그대로 반영했다. 磁氣 디스크 장치와 프린터, 흑백 CRT 등은 일제히 수출대수가 1988年 보다도 삭감되었다. 호조를 보인 것은 컴퓨터용 컬러 CRT 정도이다. 1989年은 93萬 6,000臺로 1988년에 비교해서 19.6%增을 보였다. 덧붙여서 1990年の

대만의 정보기기 수출 동향

(단위: 만臺)

구 분	1986	1987	1988	1989
퍼스널 컴퓨터	39.3	76.1	115.4	124.4
프린터	4.1	4.4	4.3	3.9
CRT				
{ 컬러	25.7	53.4	71.3	93.6
{ 흑백	24.3	34.3	36.8	31.5
자기 디스크 장치	7.1	9.7	11.9	11.5
단말 장치	31.7	41.4	50.5	45.8
컴퓨터부품 ^{주)}	69.7	145.8	201.6	203.5

주) : 부품은 단위 만個 자료: 대만 資訊工業策進會(III)

퍼스컴 수출대수는 156萬 7,000臺가 예상된다.

대만의 Acer, 네덜란드의 캔갈컴퓨터 買收

대만의 Acer(宏碁電腦)는 네덜란드의 퍼스컴 메이커인 캔갈컴퓨터를 매수했다. EC 市場 統合을 向하여 歐洲内の 物流, 기술지원 체계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Acer는 歐洲에서는 서독, 영국, 프랑스에 판매·기술거점이 있다. 今回の 買收로 캔갈社가 갖는 베네룩스 3國의 판매, 아포터 서비스 거점을 이어받게 된다.

